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3. &lt;보기&gt;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보 기&gt;

청자 1: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B]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⑤

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 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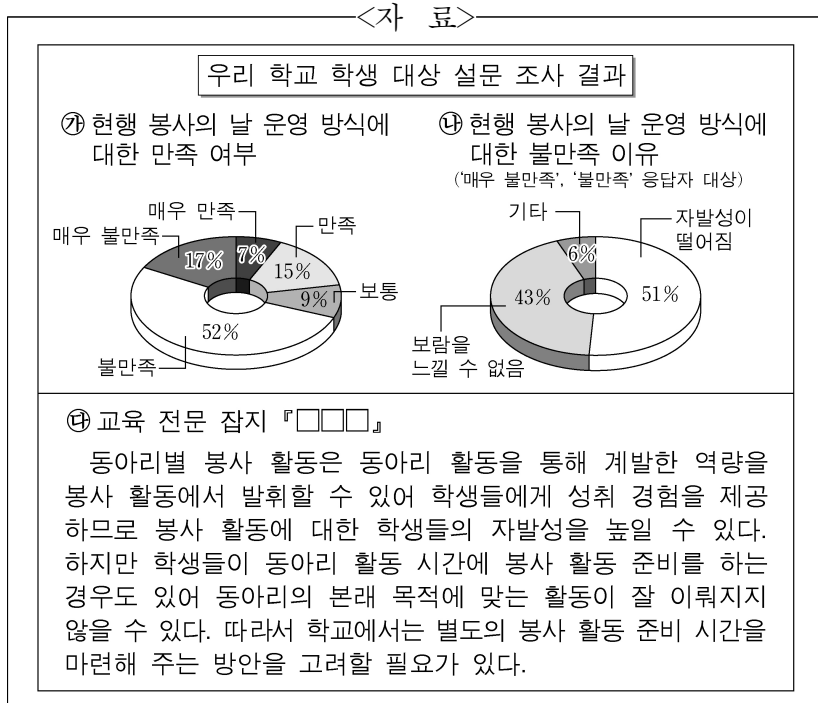
[A]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㉗과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㉘와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장 전체답장 전달 X 삭제 스템신고 목록 위 아래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 ㉑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고 자신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계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①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낙몬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펄펄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펄펄’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현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흙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b>굽다</b>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b>굽다</b>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b>김-빡</b> [김 : 빡] ㉡ ……	<b>김-빡</b> [김 : 빡/김 : 뽡] ㉡ ……
㉢	<b>냄새</b>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b>냄새</b>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b>내음</b> ㉢ ‘냄새’의 방언(경상).	<b>내음</b>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작 표현에 쓰인다.
㉣	<b>태양-계</b>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b>태양-계</b>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b>스마트-폰</b>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A]** 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건넌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 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끝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㉞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어: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4.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㉞: ‘유 한림’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얹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⑤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⑥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8.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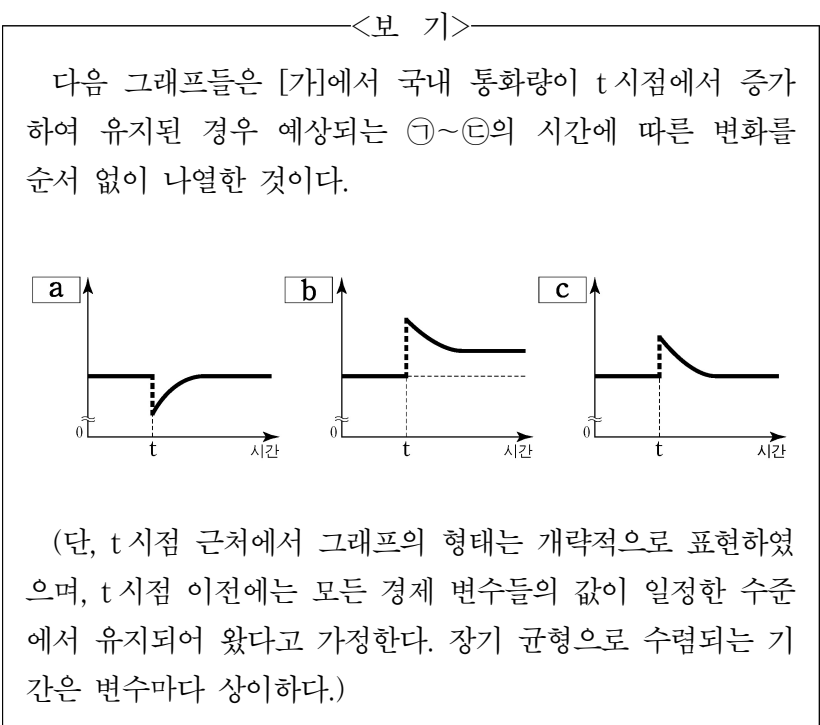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 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떨어져                      ② ㉢: 드러낼
- ③ ㉣: 불러온다                      ④ ㉣: 되돌아오면서
- ⑤ ㉣: 꺾히는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호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슬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흔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발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호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호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요양: 청나라의 십양.

\*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십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홀: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성려: 임금의 염려.

\*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뾰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뾰뾰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간죽하수문주인: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 ②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 ④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 ②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 ③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 ④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 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40. 윗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 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42.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錢送)할 계획이다.
- ② ㉡: 대중의 기호(嗜好)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한다.
- ③ ㉢: 나는 가난하지만 귀족이나 부호(富豪)가 부럽지 않다.
- ④ ㉣: 한번 금이 간 인간관계를 복원(復原)하기는 어렵다.
- ⑤ ㉥: 이 작품은 그 화가의 오랜 노력의 결정(結晶)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옴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쭉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툇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 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더라고 귀뽕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

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쉼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 뜸— 뜸부기 짹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뭇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매저지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땀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곶 개펄곶을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어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떼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먹탕곶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뭘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 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뉘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굵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라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톱던: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훑던.
- \* 콩노긔: 콩의 꽃.
- \* 자마구: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된서리.
- \* 감뭇하기도: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